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설교 자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설교 자료



본 설교 자료는 목회자 및 지도자들의 구호주일 예배 준비를 돕기 위해,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각 교회 및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시고, 구호주일 자료 묶음에 포함된 다른 자료들과 함께 사용하세요.

몸과 마음, 정신을 모두 회복하게 했던 식사에 대한 경험을 나누세요. 음식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는지 또 그 식사의 어떤 부분에서 진정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자세히 나누세요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겪는 애도와 절망의 상황에 주시는 위로를 담고 있으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풍성한 식탁에 우리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폭력과 결핍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넘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ACT Alliance를 통해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와 동역하는 헝가리교회원조회(Hungarian Interchurch Aid)는 러시아가 키이우(Kyiv) 지역을 점령한 기간 동안 부차(Bucha) 등의 키이우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음식 꾸러미를 제공했습니다. (https://umcmission.org/umcor/umcor-works-with-partners-to-relieve-distress-inside-ukraine/)

음식과 물을 구하러 왔던 한 젊은 여성은 헝가리인들이 그곳에 온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점령 기간 동안 어머니와 반려견과 함께 추위로부터 지켜줄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통조림과 감자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음식 상자를 받아 든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며 봉사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특유의 훈훈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를 다시 보러 오세요. 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설교 자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종종 다른 이들의 선함과 인자한 행동을 통해 마련됩니다. 우리가 상에 둘러앉는 일에는 뭔가 특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상에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떼며 사랑의 잔을 나누는 일을 통해 잠시 뒤에 일어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는 질투하며 나를 바라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도 원수도 함께 먹고 마시며 화해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같은 방식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바쁜 삶 가운데 살면서 영양이 불균형한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 대신 패스트푸드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 대화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음식과 휴대전화가 함께 있는 식탁에서 식사하시나요? 아예 텔레비전 앞에 식탁에 차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가족도 없는 텅 빈 식탁에 앉습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자리들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라 부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같은 방식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단절의 징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헌신과 제자도를 실천하는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과 자비의 행위를 통해 지역 사회를 회복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호위원회를 통해 식탁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와 교단적으로 연결되어 일꾼

특별선교주일

연합감리교구호주일

설교 자료

과 봉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와 협력하여 재해 대비와 장기 복구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구호위원회와 협력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혼돈과 위기의 물을 잠잠하게 하고, 희망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 치유를 제공합니다.

구호위원회를 통해 우리는 영양가 있는 음식, 가장 좋은 옷감,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믿음의 식탁을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눕니다.



사진 좌측의 어머니와 딸은 러시아 군인들의 우크라이나의 부차 인근 글리비카 지역 점령 기간 동안 지하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ACT Alliance를 통해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와 동역하는 헝가리교회원조회를 통해 음식꾸러미를 받은 뒤 찍은 사진. 사진 제공: 헝가리교회원조회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